

‘애그플레이션 비상’ 최악 식량파동 오나

세계 곡물가격 폭등…연말부터 국내 영향

식량 자급률 낮아 치명적…대책 마련 시급

글로벌 경기 침체에 이어 곡물 가격 폭등으로 일반 물가마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한반도에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뭄 및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의 생산량이 급감해 밀, 옥수수, 콩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식량 자급도가 20%대인 한국도 ‘애그플레이션 태풍’ 앞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현실이다.

15일 농촌경제연구원은 “수입 곡물이 국내 물가에 4~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곡물 가격이 올해 말부터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가루는 올해 2분기보다 27.5%, 옥수수 가루는 13.9% 급등하고 식물성 유지와 사료도 각각 10.6%, 8.8%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밀가루와 옥수수 가루가 자장면, 빵, 국수, 맥주 등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음식재료라는 점에서 물가 불안 요인이다. 또 사료 가격은 소고기, 광고고기 등 육류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축산농가의 생산비용에도 부담을 준다.

문제는 올해 애그플레이션이 역대 최악의 곡물 파동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다. 쌀(104.6%)을 제외한 밀(0.8%),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애그플레이션 2007~2008년, 2010~2011년 당시의 곡물 파동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2007~2008년에는 곡물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투기자금 유입,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옥수수로 만드는 바이오 연료로 인해 탄을 생산 증대 등이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다. 또 2010~2011년에는 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세계 곡물 공급량이 3100만t 가량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내년까지 곡물 부족량은 무려 4000만t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투기자금마저 국제 곡물시장에 급격히 유입돼 식량 가격이 들썩거렸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지나치게 낮아 곡물 가격에 의한 물가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률은 2010년 기준으로 26.7%에 불과하다. 쌀(104.6%)을 제외한 밀(0.8%), 옥수수(0.8%), 콩(8.7%) 등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곡물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면 밀과 콩을 무관세로 들여오고, 공공비축 대상 작물을 쌀에서 밀, 콩, 옥수수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업체에도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의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국내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연합뉴스

▲애그플레이션(Agflation)=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며, 곡물 가격 급등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낸다.



광복 67주년…“만세 만세 만세”

15일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광복절 제67주년 경축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유공자,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LIG손보, 손연재 동메달 실패 안도?

15억 손해볼 뻔…무더기 금 손보사 출출이 상금보상

LIG손해보험은 체조선수 손연재 때문에 15억원의 손해를 볼 뻔 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LIG손해보험은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LG전자와 상금보상보험 계약을 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한 달간 2012년형 휴센 신제품 에어컨(2in1급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행사를 했다. 손연재가 리듬체조 부문에서 동메달 이상을 획득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간 에어컨 구매 고객만 3000여명에 달했다.

손연재가 종합 5위에 머물러 보상하지는 않았지만 LIG손보는 한때 긴장했다는 후문이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우리나라 올림픽대표팀이 금메달 13개와 종합 5위라는 예상 밖의 성적을 거두자 수억원 이상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롯데손보는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롯데 계열사와 5건의 상금보상보험 계약을 했다.

롯데슈퍼와 롯데면세점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 13개 이

상을 따내면 기아자동차 레이 10대와 메달 수에 비례해 금메달(10톤)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리아세븐은 우리나라 대표팀이 종합 7위 이내에 입상하면 기아자동차 모닝 11대를 증정하기로 했다.

애플라인드는 체조 양학선이 은메달 이상을 따면 양학선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 롯데홈쇼핑 구매 금액의 100% 적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모든 계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과 선수들이 초과 성적을 거둬 해당 기업의 이벤트를 보상 해줄 수밖에 없게 됐다.

삼성화재도 삼성 계열사로부터 4건의 상금보상보험 계약을 따냈으나 대표팀의 선전으로 양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손보사가 손실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니다. LIG손보 등 손보사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시 ‘시민발전소 건설운동’ 전개

16~30일까지 절전캠페인

단체와 함께 절전지킴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절전지킴이는 전력위기 경보 발령 시 위기상황 전파 및 비상시 절전 참여요령 등을 홍보하고, 평상시에는 여름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와 함께 대형건물 및 시내 중심가 등을 중심으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여름철 냉방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10년 동안 하계휴가가 끝나는 8월 셋째, 넷째 주에 최대 전력 피크가 6번이나 발생한 만큼 이 기간 동안 절전운동 확산을 위해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치구, 시민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국토부, 이전 공공기관에 기숙사 설치비 지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비용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된다.

또 이전기관의 종전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사유 신축비용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경우 차입 이자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들 손보사가 손실 전부를 떠안는 것은 아니다. LIG손보 등 손보사들은 위험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 이전기관이 순환근무자를 위해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4~5%,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건축비를 대출해주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 기숙사는 2인 1실 기준 전용면적 50㎡ 이하로 지어야 하며 m²당 80만원(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연합뉴스

전국연합 창립 준비회의…특별법 폐기 촉구

군 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인 전국 10개 지방의회가 소음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힘을 모았다.

15일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통합보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의회에서 군 비행장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겪는 전국의 기초·광역 자치단체 의원들이 모여 ‘군 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전지련)’ 창립을 위한 준비회의를 열어졌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을 비롯한 광주 광산구·대구 동구와 북구, 화성·원주·강릉·서산·군산·예천 등 10개 시·군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이 속한 전국 42개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국방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군 소음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보상 피해 기준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군 소

음 특별법’을 폐기하고 비행장 소음 피해 방지 및 적절한 피해보상이 담긴 법안을 제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방부의 입법안에 대해 연합회의 이름으로 반대성명을 내기로 합의하는 한편 다음 달 17~20일 중 총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박장원(수원) 의원이 연합회장에, 김신화(대구 동구) 의원이 고도제한 특별위원장에, 국강현(광주 광산구) 의원이 소음피해 관련 특별위원장에 각각 내정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파리떼 출몰 수산물값 폭등세…민어·새우 어획량 ‘뚝’

수온 상승에 따른 해파리떼 출몰로 수산물 가격이 잇따라 폭등할 조짐이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해와 남해안에 갑작스레 나타난 해파리떼로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지지 않아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복포와 신안 일대에서 주로 잡히는 민어는 어획량이 급격히 줄었다. 특히 민어용 그물은 해파리로 인해 젖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 조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한 마리에 3~5kg정도 나가는 민어의 현지 시세는 kg당 2만

4000~2만7000원선. 전년 대비 25% 가량 오른 수준이다.

새우잡이도 비상이다. 새우 대신 그물에 해파리가 많이 잡혀 젓갈용 새우의 산지 시세가 크게 오른 것이다.

광천 토굴 육젓의 경우 1kg 기준 지난해 산지 가격이 3만~3만5000원이었지만 올해는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에 해파리 출몰까지 겹쳐 서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다”며 “특히 병어 수확량이 지난해의 50% 수준이다. 잡히는 상품 역시 지난해보다 멀어진다.

이마트 판매 가격은 한 마리 기준 지난해보다 평균 25.6% 오른 9800원선. 그나마 물량을 구하기 어렵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에 해파리 출몰까지 겹쳐 서해와 남해에서 어획되는 수산물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었다”며 “특히 병어는 구하기조차 어려워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지마다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국家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1571) 광주교육대학교(6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금·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 오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여대: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학자교육 진흥회 학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학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현지급수 (3급~사법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 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하는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